

#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11월 23일

교사 : 김은아

목표 : 1. 중의적 표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관용어 '귀가 가렵다', '얼굴이 두껍다'에 대해 공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백자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7급 한자를 익히고 읽을 수 있다.

5. <영조와 조선의 발전> 글을 읽고 영상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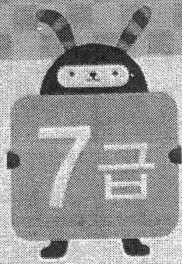
교재 : 중학교 생활국어 2-2(대교), 100대 민족문화 상징,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초등한자, 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한국사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9:55	동시대회 최종 연습 족지시험
2교시 10:00-10:30 10:50-11:05	합창 연습(#126) 동시대회 참가
점심 11:05-11:30	
3교시 11:30-12:00	SAT 풀이
4교시 12:00-12:40	역사수업(영조와 조선의 발전) 관련 영상보기
숙제	1. 한자 문제 풀어오기                      2. 관용어 읽고 공부해오기 3. 읽기자료(정약용)읽어오기            4. 어휘 공부해오기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음주에 족지시험 봅니다.

11/30은 추수감사절로 학교가 쉽니다.

12/7에는 합창 리허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자신이 맡은 부분과 후렴부분 연습하고 가사 외워 오세요.



#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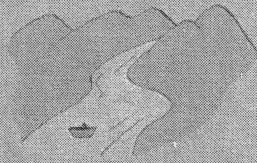
## 江

氵 + 工 = 江

물수

장인공

뜻을 나타내는 氵(물 수)와 소리를 나타내는 工(장인 공)을 합쳐서 강을 뜻합니다.



훈강 음강

氵(水)부수(총 6획)

江 江 江 江 江 江

필순에 따라 빈칸에 江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江	江	江	江	江	江	江
강강	강강	강강	강강	강강	강강	강강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江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江山( ) : 강과 산.

(山 : 메 산)

·漢江( ) :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

(漢 : 한수/한나라 한)





#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 林

## 木 + 木 = 林

나무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나무가 많이 늘어진 숲, 수풀을 뜻합니다.



훈수풀 음림

木부수(총 8획)

林林林林林林林林林

필순에 따라 빈칸에 林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林	林	林	林	林	林	林
수풀 림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林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山林( ) : 산과 숲

(山 : 메 산)

·育林( ) :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기르는 일 (育 : 기를 육)



#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亠 → 艹 + 早 → 草

이를 조

처음에는 한 포기 of 풀이 난 모습으로 표기하다.  
 무(이를 조)를 합하여 풀을 뜻합니다.



훈 풀 음 초

→ (艹)부수 (총 10획)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필순에 따라 빈칸에 草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草						
풀 초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草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草木 ( ) : 풀과 나무.

(木 : 나무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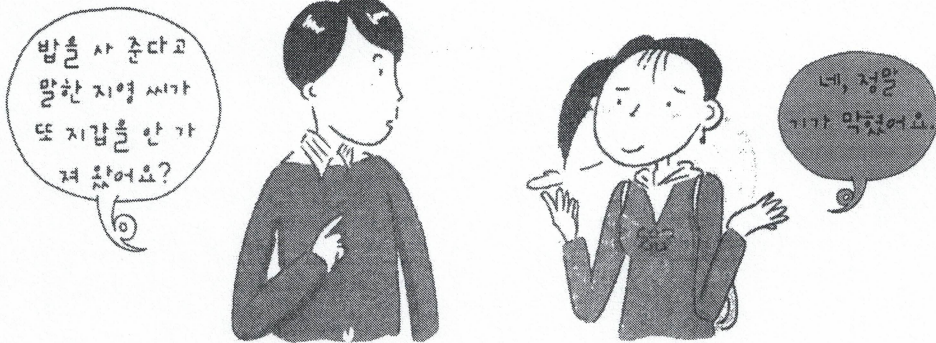
· 草家 ( ) :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

(家 : 집 가)





## 대화



아사코: 어제 지영 씨가 매운탕을 사 준다고 해서 시내에 갔다 왔어요.

민 수: 혹시 옥쟁이 할머니 식당에 갔어요? 그 집 매운탕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아사코: 네, 맞아요. 매운탕은 맛있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께 물 좀 더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하셨어요.

민 수: 하하하, 그 할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할머니께서 욕을 한 것은 아사코 씨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조금 놀랐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서 자주 가요.

아사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매운탕을 다 먹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지영 씨가 또 지갑을 안 가져 온 거예요.

민 수: 그래서 아사코 씨가 또 돈을 낸 모양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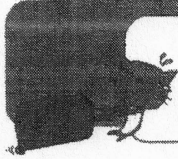
\* 기(가) 막히다: ① 어떤 일이 너무 놀랍고 황당하다 ② 매우 대단하다

### 활용예문

- ▶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참 기막히는 하루다.
- ▶ 기가 막히게 멋진 차를 새로 샀어요.
- ▶ 가: 그 사람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 나: 나도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매운탕      | <input type="checkbox"/> 옥쟁이 | <input type="checkbox"/> 기     | <input type="checkbox"/> 막히다 | <input type="checkbox"/> 황당하다 | <input type="checkbox"/> 욕하다 |
| <input type="checkbox"/> 계산(을) 하다 | <input type="checkbox"/> 차비  | <input type="checkbox"/> -모양이다 |                              |                               |                              |



## 함께해요



기막힌 사연을 소개합니다. 다음을 읽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20년 전 어느 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뀌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는 각각 서로 다른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우연히 부모님과 자신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실에 가족들은 뒤늦게 산부인과에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보았고 그 결과 20년 전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보〉



위의 신문 기사처럼 20년 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이 알고 보니 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20년 동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살겠다.

그 이유는?

- 
- 

•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에게 돌아가겠다.

그 이유는?

- 
- 

한 걸음 더

▶ 기(가) 차다(=)

노래를 정말 기차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 기(가) 죽다(ㄴ)

기세가 꺾여 약해지다

공부 좀 못 한다고 기죽지 마. 그 대신 너는 운동은 잘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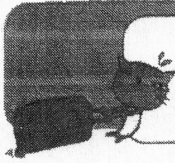
▶ 막히다

• 하수구가 자주 막혀서 큰일이에요.

• 주말이라서 길이 막힐 테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 창문을 좀 여는 게 어때?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 대화



지영 씨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 니: 지영 씨, 만약에 남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 영: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

제 니: 아침에 드라마를 봤는데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하는 내용이었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서요.

지 영: 글쎄요. 저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화가 나겠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 니: 나를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지 영: 그건 서로 노력하기에 달려 있겠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니 씨는 아직 남자 친구도 없잖아요.

제 니: 호호호, 맞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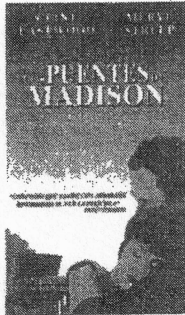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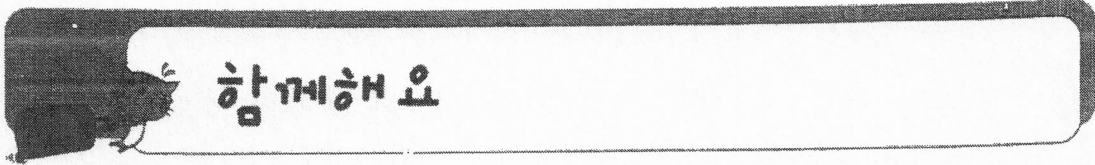
\* 바람(을) 피우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사귀다

### 활용예문

- ▶ 제 남편은 절대로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에요.
- ▶ 배우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의 영화가 많다.
- ▶ 가: 그 배우가 지난달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나: 네,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있어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피우다  | <input type="checkbox"/> 용서하다 | <input type="checkbox"/> 절대로  | <input type="checkbox"/> 상황        | <input type="checkbox"/> 배신하다 | <input type="checkbox"/> 노력하다 |
| <input type="checkbox"/> 심각하다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 <input type="checkbox"/> 이혼하다 | <input type="checkbox"/> -기에 달려 있다 |                               |                               |



영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는 단 한 번 찾아오는 아름다운 사랑과 그 추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다.

• 가족을 선택하고 사랑을 포기한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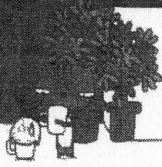
•  
•

•  
•

#### 한 걸음 더

- ▶ 바람(이) 나다(=)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 ▶ 바람(을) 넣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다  
열심히 일하는 민수에게 놀러 가자고 바람 넣지 마세요.
- ▶ 피우다⇨
  -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 좀 해.
  -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기가 막히다

기가 죽다

바람을 피우다

바람을 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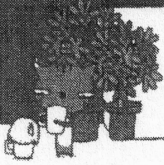
- 1 가: 요즘 설악산은 단풍이 들어서 \_\_\_\_\_ 게 아름답겠지요?  
나: 그럴 거예요. 우리도 어서 단풍 구경 가요.
- 2 가: 시험에 또 떨어지다니 난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  
나: 너무 \_\_\_\_\_ 지 마.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 3 가: 소현 씨가 이번 여행을 안 가겠대요.  
나: 네?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_\_\_\_\_ 사람이 안 간다니 말도 안 돼요.
- 4 가: 준기 씨는 혹시 \_\_\_\_\_ 적이 있어요?  
나: 글썄요. 비밀이에요.
- 5 가: 민수가 약속을 또 잊어버렸어요. 정말 \_\_\_\_\_.  
나: 그만 화 푸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 6 가: 그 친구가 \_\_\_\_\_ 줄 정말 몰랐어.  
나: 나도 그래. 두 사람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변했을까?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 이야기해요

## 기(가) 막히다 / 바람(을) 피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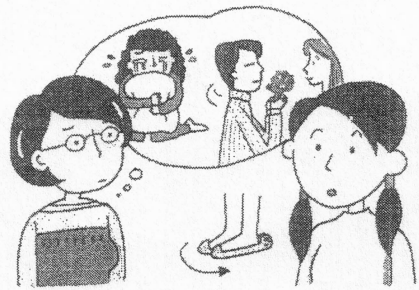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선희: 제 여동생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해요.

요코: 무슨 일이 있어요?

선희: 동생 남자 친구가 얼마 전에 제대  
했는데 바람을 피운 모양이에요.  
그 남자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동  
생이 보낸 편지가 수 백 통이 넘을 거예요.



요코: 기가 막히네요. 2년을 넘게 기다린 여자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희: 동생 남자 친구가 기가 막히게 잘생겨서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요코: 그랬군요. 선희 씨가 동생을 잘 위로해 주세요.

선희: 네,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사람보다 군화를 거꾸로  
신는 사람이 더 많대요.

요코: 신발을 왜 거꾸로 신어요?

선희: \_\_\_\_\_

요코: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선희의 여동생은 왜 울어요?
- 2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 3 여러분이 선희의 여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 어휘

☐ 제대하다 ☐ 군대 ☐ 따라다니다 ☐ 위로하다 ☐ 고무신 ☐ 거꾸로 ☐ 군화



정약용은 왜 귀양살이를 좋아했을까?

## 정약용



정약용은 조선 시대 최고의 선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예요. 그는 일찍부터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경기도 암행어사와 승지 등의 관직을 두루 거쳤어요. 1793년에는 정조 임금의 명령으로 수원성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거중기를 발명해서 공사비를 낮추고, 공사 기간을 줄였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1801년 간신들의 모함으로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돼요. 그는 전라도 강진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해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홀로 외롭게 지내야만 했지요. 하지만 그는 “시끄러운 수레 소리가 안 들리는 조용한 시골에 오니 오히려 학문에 열중할 수 있어 참으로 좋구나!”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의 말대로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하며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썼어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 등이 바로 정약용이 귀양살이를 하면서 쓴 대표적인 책이에요.

《경세유표》는 정치 제도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적은 책이에요. 당시의 정치 제도가 왜 잘못됐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당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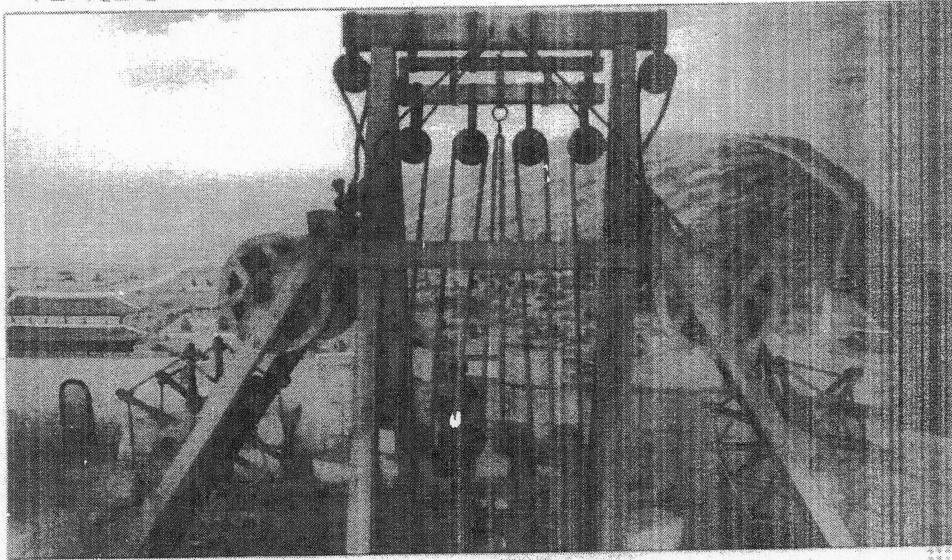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목민심서》는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쓴 책이에요. 관리로서의 생활 태도, 지켜야 할 일 등을 쉽게 설명해 놓았지요.

1818년 귀양살이에서 풀려난 정약용은 고향의 서재를 ‘여유당’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서 책을 쓰는 데 열중해요. 1828년에는 형벌 제도에 관한 책 《흠휼신서》 30권을 완성했어요.

1836년 그는 자식들에게 절대 벼슬에 나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두어요. 정약용은 높은 벼슬에 있을 때도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백성들을 생각한 학자예요. 정약용은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깊이 연구한 진정한 선비였답니다.

▼ 수원 화성을 살기 위해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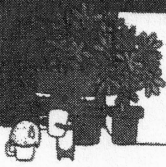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100대 민족문화상징



<읽기자료> 백자, 영조와 조선의 발전

1. 조선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인 이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이 강조되어 있어서 조선 시대 선비 정신이 담겨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2. 일본은 우리의 도자기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임진왜란때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도공들을 자신의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 )전쟁이라고도 해요.
3. 영조는 봉당끼리 편을 갈라 싸우는 일을 없애기 위해 ( )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어요.
4. 영조를 도와 조선을 다시 일으킨 신하 중에 ( )는 학문이 뛰어난 데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고, 한 때 지방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는 암행어사의 일을 하기도 했어요.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귀가 가렵다 귀가 아프다 얼굴이 두껍다 얼굴을 내밀다

- 1 가: 내일까지 그 책을 꼭 가져 와.  
나: 알았어.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_\_\_\_\_.
- 2 가: 크리스 씨가 수료식에도 \_\_\_\_\_ 지 않았어요.  
나: 아마 사정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나 봐요.
- 3 가: 정호가 커닝을 해서 시험을 잘쳤다고 해. 그래서 장학금도 받는데.  
나: 정말? 정호가 그렇게 \_\_\_\_\_ 사람인 줄 몰랐어.
- 4 가: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 재채기가 나온다고 해요.  
나: 그래요? 재미있네요. 한국에서는 \_\_\_\_\_ 라고 말해요.
- 5 가: 저 사람이 민수 씨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이에요?  
나: 네, 맞아요. 얼마나 \_\_\_\_\_ 사람인데요.
- 6 가: 왕방 씨 남자 친구가 잘생겼다고 \_\_\_\_\_ 게 들었어.  
나: 그랬어? 한번 만나 보고 싶네.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 <6. 정조, 학문을 발전시키다>

### 1. 학문을 좋아하고 백성을 아끼는 왕



정조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내가 왕이 되면 옛날 왕들이 지은 책을 비롯해 시와 그림, 그리고 내가 쓴 글까지 한 곳에 두고 보리라.’

정조는 왕이 되자 평소 품었던 꿈을 실행하기 위해 창덕궁 비원 옆에 아담한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이 바로 규장각<sup>1)</sup>이에요.

“앞으로 규장각에서는 의정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시오.”

의정부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이 규장각에 기록으로 남게 되지요. 또 왕위에 오른 지 삼 년째 되던 해에는 서얼(庶孽)<sup>2)</sup>에게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어요.

“나라에 충성을 하는데 첩의 자식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소. 앞으로는 서얼도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오.”

유교의 가르침을 엄하게 따르던 조선에서는 본래 부인의 자식과 첩의 자식을 따로 구분했어요. 그리고는 첩의 자식과 그 자손들을 서얼이라고 하며 벼슬을 주지 않았지요. 정조는 이 틀을 깨고 서얼도 어느 자리까지는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정조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규장각의 규모는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들의 글이나 그림, 초상화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 들어 온 책까지 보관하게 되었지요.

한편 정조는 효심도 남달랐어요. 정조는 영조에게 죽음을 당한 사도 세자의 아들이었어요.

‘불쌍한 아버님의 원혼(冤魂)<sup>3)</sup>을 달래 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정조의 마음을 읽은 신하들은 사도 세자의 묘를 좋은 곳으로 옮기자고 했어요. 정조는 사도 세자의 묘를 수원 현릉원으로 옮기고, 다음 해 현릉원을 찾았어요. 현릉원에서 일주일일을 보내고 돌아오던 날, 고개를 넘던 정조는 가마 행렬에게 명했어요.

“천천히 가도록 해라. 이 고개만 넘으면 아버님의 묘가 보이지 않는다.”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에서 일하던 유득공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다 발해에 관한 기록들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고려의 왕조가 발해를 빼놓고 신라, 백제, 고구려의 역사만 다룬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득공은 고구려의 후손들이 고구려 땅에 세운 발해의 역사를 정리했어요. 그리하여 정조 8년에 <발해고>라는 책을 완성했지요. <발해고>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만약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여 국사의 일부에 넣고, 요나라나 금나라에게 빼앗긴 발해의 땅을 돌려받았다면 중국으로부터 작은 나라의 서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득공과 더불어 규장각에서 함께 일했던 서얼 출신의 사람으로, 이덕무가 있었어요. 집안이 가난했지만 욕심이 없고 글읽기를 좋아했지요. 이덕무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어느 날 이덕무는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앞선 가족들이 온 마을을 찾아다녔는데, 그는 엉뚱하게도 관청의 담장 앞에 있었어요. 이덕무는 담장에 발라 놓은 옛날 책을 읽느라 해가 저무는 것도 잊었던 거예요.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소매에 붓과 종이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생각나는 것들을 적었어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는 산, 냇물, 나무, 짐승 등의 이름을 낱날이 적어 와 이름을 알렸어요.

또 욕심이 없어서 지방의 벼슬을 하다 물러날 때에는 돈 한 푼 모아 놓은 것이 없었으며, 규장각에서 나올 때는 하인이 없어서 동생이 짐을 옮겨 주었을 정도였지요.



